

판 결 문

생약재를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포장한 것은 의약품이라 단정할 수 없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제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물품의 성분, 제법, 함량, 외관의 형상, 표방된 효능, 효과, 사회일반의 섭생실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회 일반인에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에서 본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인 한, 이를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생약재를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이것들을 모아 다시 상자에 담아 포장한 것은, 대한약전에 수록된 한약재를 그 포장물의 내용으로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포장품을 곧 바로 의약품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포장품의 복용방법, 제법 및 성분, 표방된 효능, 효력 그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인식, 섭생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농보혈초는 상주농어촌특산단지에서 인삼, 산사육, 결명자, 두충염, 천궁, 산약, 갈근 등 20여종의 특용작물을 아무런 가공이나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적당량씩 비닐봉지에 넣어 종이 상자에 한봉지씩 분리하여 넣고 포장한 것으로 이를 혼합한 바 없어 의약품으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전 엑스포와 텔레비전에 경북지방의 특산품으로 출품, 소개된 바 있고, 그 포장, 설명서에도 약품적 효능, 효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표방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건강효도산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복용방법은 물에 달여 차와 유사하게 복용하는 것으로서, 재료인 한약재의 대부분이 대한약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예컨대 대추, 영지버섯, 두충염과 같이 그 자체로서 널리 식용, 또는 음용으로 쓰이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포장물 전체를 복용방법에 따라 달여 건강보조용으로 복용하고 있는 사회일반인의 인식과 섭생실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농보혈초는 이를 의약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건강식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영농보혈초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의약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당원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형소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의사 또는 약사면허, 의약품도매업이나 제조업허가가 없음에도 1993. 10. 29경부터 1994. 5. 16경까지 음양곽, 백봉령, 영지버섯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만든 영농보혈초라는 의약품을 공소의 이점백으로부터 납품받아 한제당 7만원씩 총 4천2백제, 시가 금 2억9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의약품판매업을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하였던 영농보혈초를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의약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년 5월 19일

재판장 판사 이우근
판사 신홍철
판사 이인규

특별기교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
서종호 서기관

8천원에 달하고 있지만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분야에 취약점이 많아 국제화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크히미 출산 실정이다. 생산면 에 있어서도 혼합 재배 규모가 7백평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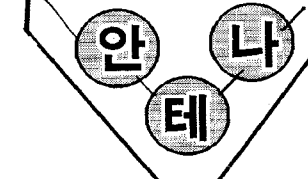
높아야 하며,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국산한약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좋은 예로 본인인 94년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주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우리생약살리기 추진 바람직 국내생약농업의 구심점으로

최근 국민생활향상과 배계제로 전향되고 있는 수출의 많지 않은 식품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 다. 그러나 국내생산 농 아산에 대한 한약재의 가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소비량의 증가는 노익의 낮은 한약재 1, 양양작물의 생산도 임용가로 국내 한약재 60여종의 달하고 있으나 60여종의 달하고 있

최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오미자화차

△준비물=오미자1컵 물 10컵 설탕시럽 또는 꿀 2큰 술 복숭아 1개
①깨끗이 씻은 오미자를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섭취가 건강관리 기본. 시원한 화차는 더위를 가시게 하는 여름철 원료로 그만이다.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인스턴트음료 대신 집에서 간단히 만들수 있는 오미자화차로 더운 여름을 이겨보자.

- 다. 이때 더운물에 담가두면 한약 냄새가 나고 신맛이 많이 나게 되므로 반드시 찬물에 우려내도록 한다.
 - ②복숭아는 얇게 저며 꿀에 재어둔다.
 - ③오미자의 붉은 빛이 곱
- 게 우리나라 체에 발아 펄펄 끓인다.
④끓인 오미자를 차게 식힌뒤 설탕시럽이나 꿀을 넣는다.
⑤재어둔 복숭아를 오미자화차에 넣고 잣과 함께 띄워낸다.

생약협회의 기대와 바람

최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가 서울 제기동에 생산한약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보를 우리 한약재 사령관을 위한 소비자